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9

중생교화 위해 세상 소리 듣다

[원문] 一葉紅蓮在海中(일엽홍련재해중) 碧波深處現身通(벽파심처현신통) 昨夜真院觀自在(작야진관자재) 今日降赴道場中(금일강도량중) -향일암 관음전

[번역] 한뼉기 분홍 연잎 바닷물에 떠오르니 푸른 파도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이 현신하셨네. 어제 밤에 보타 낙가산의 관세음보살 금일 도량에 나투시도다.

[산해(禪解)] 우리나라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산속의 절은 넉넉하게 부처님의 자비를 품고 있고 바닷가의 절은 한 폭 풍경화처럼 다소곳하게 앉아 있다. 천년 동안 풍상(風霜)을 견디고 온전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실로 자애로운 부처님의 공덕이 아닐 수 없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 세상의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썩기 마련이다. 하물며 바닷가의 절이나 깊은 산속의 절도 스님들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당 마루를 쓸고 닦거나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닦는 것도 승가에서는 하나의 수행이다. 스님들은 평생 그렇게 절을 자신의 수행처로 삼고 소중히 보존해 왔다.

그런데 이를 정부와 일반 국민들은 알고나 있을까? 더욱이 성보사찰인 풍도사나, 해인사, 월정사 등 수많은 사찰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다. 이를 관리하는 스님들이 없었으면 이미 그것들은 도굴이나 도적질로 망실되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사찰의 문화재들이 온전하게 보존돼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지극정성으로 관리하는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정부의 시각으로 그 많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엄청난 관리비가 들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절은 비단 스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오늘날의 사찰은 국민의 정신적 휴양처가 되고 있다. 다만 스님들은 그 절에 머물면서 수행처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절 관리의 대부분이 불자들이 내는 시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과연 알거나 할까? 승려법이 전소되고 난 뒤 '소 잃고 외양

간 고쳐뒀' 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 사찰의 운영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시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어서 사찰경제도 날이 갈수록 위축된다.

몇 년 전, 정부는 사찰입장료를 없애버리고 문화재관람료를 내게 했다. 물론, 국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방대한 성보 사찰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사찰 문화재관리 보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사찰은 당연히 그런 보호를 받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절을 스님들만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들이 관리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옳다.

이와 같이 사찰경내는 천년의 문화유산이자 역사공간이며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공간이다. 따라서 휴식, 놀이, 운동, 메저를 위한 공원 관리 개념인 자연공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

중생은 일망무제 바다 보며 '공덕' 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사찰과 불교유적 등 문화유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오늘의 사찰 주련여행은 전라남도 여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돌산도에 있는 향일암이다. 화엄사의 말사로서 금오산(金鰲山)이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언덕에 제비집처럼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암자인데,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불과 25년 전이어서 전각들은 현대식이다.

향일암의 난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면, 왼쪽에는 중생이 서원에 감응했다는 감응도, 앞바다에는 부처가 머물렀다는 세존도, 오른쪽에는 이미 타불이 화현했다는 미타도가 한 폭 그림처럼 앉아 있다. 이 암자는 <여수군지> 및 <여산지>에 따르면 원효 대사(元曉大師)가 659년(의자왕 19)에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장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950년(광종 9)에 율필(율) 거사가 이곳에 수도하면서 원통암을 금오암(金鰲庵)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인 1713년(숙종 39)에 당시 돌산 주민들이 눈과 발 52두락을 헌납한 지 3년 뒤인 1715년에 인목(仁穆) 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암자를 옮기고, '해를 바라본다'는 뜻의 향일암이

라고 지었다고 한다.

금오산 기암절벽 사이의 웅장한 동백나무와 남해의 수평선에서 솟아오른 일출 광경이 천하일품 이어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관음전, 칠성각 취성루, 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는 창방(枋房)이 얹혀져 있으며 뒷 첨자를 걸구하였다.

공포는 기둥 위에만 설치하는 주심포계이며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대웅전 안에는 1987년에 조성한 청동석가모니불과 관음·지장보살이 있다. 1988년에 조성한 영산회상도와 금니(金泥)로 채색한 신중탱화, 1983년에 만든 소형 범종 등도 봉안돼 있다. 관음전은 대웅전 뒤쪽으로 떨어진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초익공계이며 바람막이 판이 달린 맞배지붕이다.

1991년에 조성한 관음보살상과 관음탱이 있고, 관음전 옆에는 석조관음보살입상과 동자상이 있다. 대웅전 뒤에 있는 일명 흔들바위는 경전을 펼쳐 놓은 듯한 형상인데, 이 바위를 한 번 흔들면 경전을 사경한 공덕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그럼 주련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엽홍련 재해중 벽

파심처 현신통.'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피는다는 뜻이며, 관자재(觀自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觀照)해 보살핀다는 뜻이다.

보살(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성자이므로 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향일암 난간에 앉아 먼 바다를 보면 마치 지금도 연꽃위에 관세음 보살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작야보타 관자재 금일강부 도량중.'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인도의 남쪽에 있는 보타락산(普陀落山)에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보타락산은 팔각형의 산으로, 산에서 자라는 꽃과 흐르는 물은 빛과 향기를 낸다고 한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어찌람 향일암에 나투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원을 세워 발원하셨다는 뜻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광(風光)이다.

하지만 향일암의 해를 바라보는 것은 그저 중생의 마음일 뿐, 해를 품안에 안은 것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그렇게 중생들은 일망무제의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늘도 부처님의 공덕을 기다린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9

도는 닦고 증득할 것도 없다

[원문]

又云 見本性爲禪. 若不見本性 即非禪也. 假使說得千經萬論 若不見本性 只是凡夫 非是佛法. 至道幽深 不可話會 典教憑何所及. 但見本性 一字不識 亦得. 見性即是佛. 聖體本來清淨 無有雜穢. 所有言說皆是聖人 從心起用. 用體本來空名 言尚不及 十二部經 憑何得及. 道本圓成 不用修證. 道非聲色 微妙難見. 如人飲水 冷暖自知 不可向人說也. 唯有如來能知 餘人天等類 都不覺知. 凡夫智不及 所以有執相. 不了自心本來空寂 妄執相及一切法 即墮外道.

또 말하기를, "본성을 보는 것을 부처라 하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니라. 천경만론(아주 많은 경전을) 설한다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범부일 뿐 부처의 모습이 아니니라.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경전으로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느냐! 본성을 보기만 하면 일자무식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보면 곧 부처이니라. 성스러운 본체는 본래 청정해 온갖 더러움이 없느니라. 온갖 말씀이 모두 이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니라. 작용의 실체는 본래 공(空)해 명칭이나 말이 미칠 수 없는데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 도(道)는 본래 완성돼 있는 것이라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느니라. 도는 소리나 물질이 아니며,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차가운지 따뜻한지 알 수 있는 것

입니다. 경(經)은 길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이정표입니다.

'도(道)는 본래 완성돼 있는 것이라 닦을 것도 없고, 증득(깨달음)할 것도 없느니라.'

우주의 근본 실상 자리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지만 부득이 달마 스님께서서는 여기서 '도(道)'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근본 실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겁니다. 본래 있던 것을 다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도는 본래 있었던 것이므로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모두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리나 물질이 아니며,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셔봐 차가운지 따뜻한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본문에서 미묘하다는 것은 우주의 실상, 즉 모양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니까 미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즉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는 이 자리를 '참 진眞' 자, '텅 빌 공(空)'자를 써서 진공(眞空)이라 하는 겁니다. 참 공한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이런 얘거 든요. 모양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 하기에 '미묘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 봐야 맛을 알듯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체험을 해야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생에 남아있는 업을 녹이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달마 스님께

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이 분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도리를 알 수 있기에, 일반 사람들이나 천상의 신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얘깁죠.

분명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순간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지구도 일초에 37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니, 육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하는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당체(當體)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리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범상(法相)입니다. 상에 빠진 거예요. 어떤 문자자라도 표현 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중도(中道) 역시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양정명(梁鼎銘) 작 '달마상(達摩像)'

[해설]

일삼삼매(일삼삼매)란 우주를 하나로 보는 자리를 말하지요. 과거로부터 익혀온 모든 습과 업을 녹여서 우주와 하나가 될 때 부처라 하며 경을 의우고 열불을 한다고 해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사견(邪見)이요 외도(外道)의 견해입니다. 본래 성품 자리는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니, 어찌 경으로써 성품 자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정진을 통해서 성품을 본다면, 부처라 합니다. 부처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이니 생도 죽어도, 늙어거나 젊어질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자리이니 모양이 없다 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아

스님! 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빙의·퇴마·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교육 기간 6주,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교육 비용 100만원. 시공간을 초월한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개인 특별지도.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조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 법문, 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 행사, 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세트 CD30장,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세트 20장 CD,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 제작을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사)대승불교 조계종 부산교구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1기 학인 모집 안내. 교육과정. 이론교육: 본 중단 총무원장 한파스님 직강 실기교육: 본 중단 강주 교육부장 성각스님. 1. 기본과정: 각단, 각청 불교계반의식. 2. 49제 및 천도제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육,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개강일: 양, 8월 21일 금요일. 수강일정: 매주 화, 수, 금요일. 수강시간: 오후 3시. 교육비: 개강일로부터 1개월 무료. 타 중단 스님도 환영합니다. 범음대학: 흥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문의 및 접수처: 흥은사 (051)243-3165 본 총무원 (051)527-7733. 중단홈페이지 http://dsbuddha.org 참조 인터넷 검색사이트 (다음, 네이버)에 대승불교조계종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산교구 범음범패 불교대학 학장 유초 합장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창종. 일시: 불기 2553년(서기 2009년) 7월 27일.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문의: 총무원 052)225-7378 H·P 010-7135-7378. 창종위원회: 무상, 지웅, 원정, 원각, 범향, 정법, 대기, 혜경, 보연.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존경하는 전국 비구니 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중단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수행 생활 속에서 마련한 사찰재산과 신분을 보장하고 부처님의 말씀 따라 불법을 널리 흥보하여 불교정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불교정도에 앞장서기 위하여 비구니스님들께서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입종안내. 종단명: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종교단체등록 (26111-00154). 비영리법인고유번호 (620-82-67363). 총무원: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연락처: 052)225-7378 / FAX 052)277-0194 H.P: 010-7135-7378